



전주시의회 정성길 의원, '재능나눔 공헌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정성길(서신동) 의원이 지난 10일 '2021 하반기 재능나눔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사)한국재능기부협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다양한 재능을 사회 각계각층에 지원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본인의 재능을 기부 문화를 통해 사회 곳곳에 전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소외된 곳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자세를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안성면, 산불감시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무주군 안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1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가을철 산불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은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K-EFR CENTER)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중요 이론 설명 및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으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위급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불감시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 축사 방범시설 점검

무주경찰서(서장 민중석) 생활안전계 방범예방 진단팀은 축사 중심으로 방범예방을 위한 순찰 등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축사는 외진곳에 위치하여 취약시간대 절도 등 범죄예방이 필수적이다. 축산물 절도 피해 발생 시 농민들의 상실감이 배가 되고, 농촌 지역의 경제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 주민민첩형 탄력순찰 시행 등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이에 방범예방 진단팀은 최근 3년간 축산물 절도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관내 축사에 가시적 탄력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직업인 인터뷰 공모전 시상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이 직업인 인터뷰 공모전을 개최, 지난 11일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인 인터뷰 공모전은 재학생들이 진업을 희망하는 산업 및 직무에 종사하는 직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소회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과 동기부여를 목표로 기획됐다.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직업인과의 인터뷰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치위생학과 외 8개 학부(과) 15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치위생학과 학생은 "인터뷰에 응해 준 인터뷰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놀라웠고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전은 직업에 대한 현실감 있는 정보 습득과 심적인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수 실장은 "취업 희망 분야의 현직자를 인터뷰하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됐을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소통할 수 있는 봉사에 적극 참여”

전북사진기자협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전북도내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사진기자로 구성된 전북사진기자협회(회장 장태업)가 지난 12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져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해마다 취재현장에서 만나던 연탄 나눔 봉사에 직접 참여해 코로나19와 한파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마련해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에 연탄 1000장을 기탁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태업 회장은 "도민과 함께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진기자들이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현장을 찾아 함께

땀 흘리고 봉사의 따뜻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시민들과 재능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사진기자협회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 뉴시스, 뉴스 등 도내 언론사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윤성 기자

효자2동 자생단체 연합,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전주시 효자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모인숙)는 지난 12일 김장철을 맞아 봉정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바라기봉사단, 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내 자생단체들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효자2동요양병원(원장 김정연)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날 김장 행사에서 이들 단체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해 정성껏 김치를 담아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효자2동 자생단체 연합은 매년 연말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담은 김장김치를 나누어 공동체 정신 함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모인숙 주민자치위원장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에 걸쳐 정성이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황혜란 봉정협의회 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이유진 학생, 전통 된장 특성 연구 우수 논문상

전북대학교 이유진 학생(식품영양학과)이 최근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유진 학부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미나경민 교수의 연구 지도를 받아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전통된장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발표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상은 석·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부생 연구 성과로서는 이례적 수상이다. 이 연구는 전북대 김각과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된 김각과 및 항미화학기법을 활용한 전통된장의 지역별 항미특성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각 지역별로 전통의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는 전통된장의 항미를 객관적으로 프로파일링



해 지역을 대표하는 된장의 특징적인 향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상을 수상한 이유진 학생은 "김각과연구소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하면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성과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이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미나경민 교수님과 김각과연구소팀 선배들과 이번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영양 관련 학회로, 식품과 영양에 관한 연구의 촉진,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영양보건의 향상 및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경진원, 19일까지 금요일마다 연탄나눔 봉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하여 밥상공동체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전주시내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추위와 난방비 부담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연탄 2500장을 마련했다. 연탄은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일찍 찾아온 한파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느낄 이웃들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3차례에 걸쳐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동서학동에서 진행했으며, 12일과 19일에는 서서학동에서 봉사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갑작스러운 추위와 코로나19로 쌀쌀해진 사회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 연탄나눔 봉사를 준비했다"며 "땀을 흘려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연탄처럼, 지역사회의 곳곳에 사랑과 온기를 전달하는 경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김이재 도의원, 전주 농수산물 활용 나눔행사 참여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신동)이 지난 12일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전주지역본부와 착한밭들이 함께한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사랑의 나눔행사'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 구매, 도움이 필요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이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있다"며 "준비한 농수산물꾸러미를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수산물의 구입, 꾸러미 제작, 배송을 도내 이주여성 다문화 가족자녀들로 구성된 '착한밭'에서 맡아 더욱 큰 울림이 있었다. /유호성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성과 한마당 성료

전주대학교는 12일 하림미션홀에서 '산학협력주간' 행사로 JJ Techno-Festa(산학협력성과 한마당)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매년 11월 둘째 주를 '산학협력주간'으로 정하고 성과발표, 전시 및 시상했다. 이에 올해도 JJ Techno-Festa(산학협력성과 한마당)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LINC+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산학협력 우수한 가족회사에 감사패 증정,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발표회, 4차 미래상상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시상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과의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국제교류원, 유학생 한국문화체험행사

전주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1~12일 이틀 간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시, (재)전북푸드종합지원센터, 국제문화진흥원, (사)자연음식문화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 국내학생, 교직원, 재전북푸드종합지원센터, (사)자연음식문화원(지원단) 등이 참여해 '김치 담그기'와 '전통 떡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미얀마 유학생 니라진(미용간담과 1년)은 "전주비전대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 너무 즐겁게 참여했다"며 "한국 김치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화산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실시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재)은 지난 12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 나눔의 정성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화산면 부녀회(회장 조순자)와 함께 만든 김장김치 600여 포기, 독거노인과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김종재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컨싱턴 리조트와 사회공헌 협약체결

남원시는 지난 12일 컨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100명에게 뷔페레스토랑 에슬러 윈즈에서 연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등 민과 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지리산남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족단위 외식을 무료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우 기자